



미 증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하락 전환

미국 증시 리뷰

26일(목) 미국 3대 증시는 지수 고점 부담감이 누적된 가운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요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 소식 등이 위험선호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 마감(다우 -0.5%, S&P500 -0.6%, 나스닥 -0.6%). 업종별로는 부동산(+0.1%)을 제외한 에너지(-1.5%), 경기소비재(-0.7%), 커뮤니케이션(-0.7%), 소재(-0.7%) 등이 약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연준은 연내 테이퍼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언급.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제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부양책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분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 댈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에 시작하길 원하며 2022년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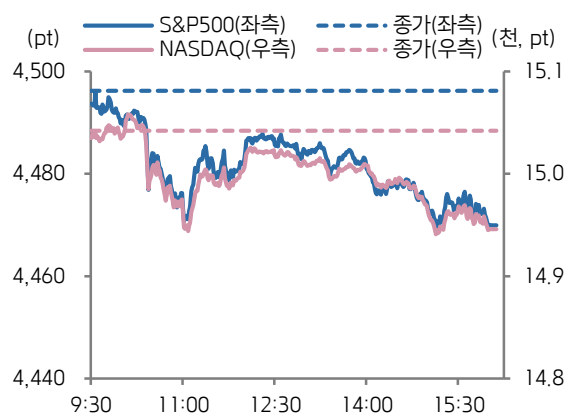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는 미국 및 탈레반과 적대적 관계인 무장단체 IS의 폭탄 테러가 발생. 이로 인해 미군이 12명 사망,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포함 총 90명 사망, 15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발표.

미국 증시 평가

지난주 금요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테이퍼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댈러스 연은 총재가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화하는 등 연준 내에서 긴축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 결국 주 초반에는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인식됐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장 발언이 재차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파월의장은 경제 전망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발언을 하지만, 그 안에서 연내 테이퍼링 관련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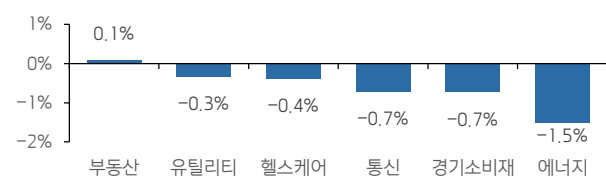
한편, 카불 공항 테러 이후 미국이 보복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시 영향력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쳤다는 점, 또한 특정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가 감행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 시 향후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S&P500&NASDAQ 일종 차트(8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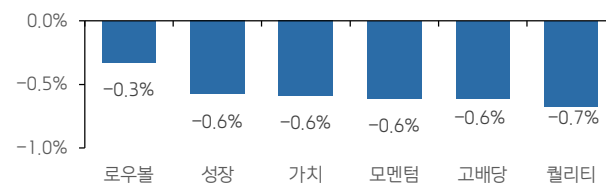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2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2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9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잭슨홀 미팅을 앞둔 주요 수급 주체들의 관망심리 심화 여부 2. 아프가니스탄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시 영향력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3. 전거래일 급등했던 대형 주요 게임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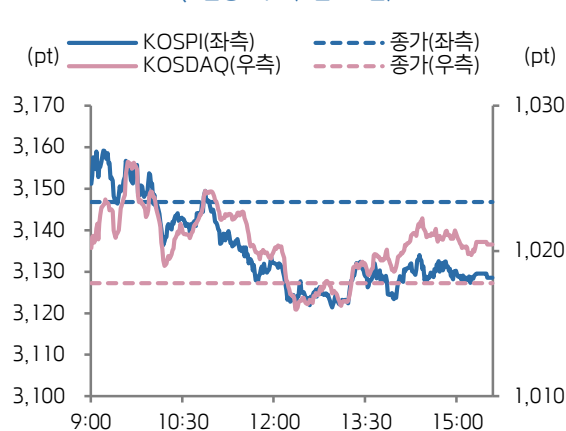
26 일(목)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에 부합했던 만큼 증시 영향이 제한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 관망심리 심화, 중국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수급상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3%). 업종별로는 은행(+1.4%), 섬유·의복(+1.3%), 운수창고(+1.0%) 등이 강세, 서비스(-1.8%), 기계(-1.4%), 철강금속(-1.0%)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34억원, 816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4,405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금일 밤 예정인 잭슨홀 미팅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 반전 역할을 했던 달러스 연은 총재가 재차 긴축 강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다만,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왔던 이슈였던 만큼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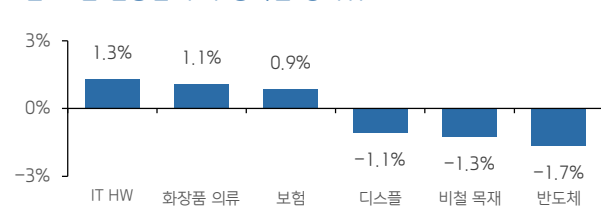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시대 돌입, 본격 금리인상기 진입에 따른 증시 위축 불안 심리가 상존. 그러나 전거래일 국내 채권 금리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은의 연내 1~2 회 인상은 이미 채권시장에서 반영됐던 이슈였다는 점에 주목. 또한 현재 0.75%의 기준금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 이전 기준금리인 1.25%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8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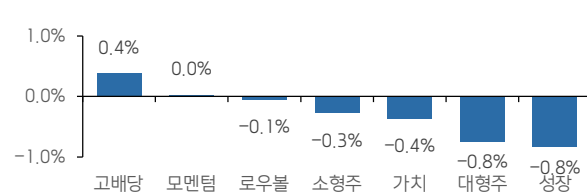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2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2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